순천시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입 가시화

지난달 IUCN 회원가입 신청
승인땐 정책개발 지원 등 혜택
한국 대표 생태도시 위상 제고

순천시가 최근 세계적 자연보전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IUCN)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달 말 IUCN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가입이 결정되면 올해 10월에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

IUCN 회원으로 승인되면 국제 네트워크 확대,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지원, 국제적 인지도 상승, 생태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로써 시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로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통해 국제적인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IUCN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생태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국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시가 최근 세계자연보전연맹에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국제 두루미재단에서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을 방문한 모습. 〈순천시 제공〉

한편, IUCN은 194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자연보전 기구로, 160개국 이상의 정부,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정책 제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엔(UN)과 협력하여 글로벌 환경 이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향

이달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광양시가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광양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왔다. 이번 보증료 지원 상향은 보증료 가입금액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광양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하되, 청년 임차인 청년외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건축과(061-797-2886),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김순열 광양시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상향지원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평생대학 개교 30주년 기념행사 성료

보성평생대학 개교3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9일 보성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로 위안 잔치도 겸한 이번 행사는 1995년 개교 이래 지역 어르신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해 온 보성평생대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한 지난 시간에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보성평생대학 개교 3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9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대표 평생교육기관의 성장을 축하했다.

'보성평생대학'은 지난 30년 동안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연간 2000만원의 군비가 투입되며, 교양강의와 실기 중심의 전문 과정인 스포츠댄스, 풍물놀이, 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25년 현재 120명의 재학생이 등록돼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정기수업과 무료 중식 제공, 하계 수련회 등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함께 높이고 있다.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문화 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자원순환형 나눔장터 여수 벼룩시장 '대박'

5일 첫 개장 1000여 명 몰려
모종 나눔 등 체험행사 인기

올해 첫 개장한 '여수 벼룩시장'에 시민 1000여 명이 몰리며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사진〉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일 거북선공원 잔디광장에 시민 판매자 150여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자유롭게 판매·교환하는 자원 순환형 장터가 열렸다.

올해는 누룽지·초콜릿·물린디 만들기, 모종 나눔 행사, 향기 테라피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새롭게 선보인 체험 콘텐츠로 행사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또한, 행사장 내에 바가지요금 신고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 부스를 설치해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첫 개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열띤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여수 벼룩시장이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나눔과 순환,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장터로 발전하도록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 벼룩시장은 7~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오는 11월까지 6회에 걸쳐 개최되며,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5월 벼룩시장은 '여수거북선축제' 개최로 두 번째 토요일인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물품 판매를 위한 참가 신청은 개장 일주일 전 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235곳 일제 점검

곡성군이 이달까지 해빙기 지반 약화 우려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23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민가 주변을 중심으로 사면 절개지, 낙석 우려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지장목 제거와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대피소와 대피로를 사전 안내하고 산사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했다.

군은 산사태 여름철 대책기간 전까지 취약지역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여 순찰·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우기 전까지 사방댐 7개소와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업 완료하여 여름철 산사태 위험을 최소화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추가 위험지역을 발굴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호우가 잦고, 강우량이 증가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고흥군 내달 9일까지 지방세외수입 확충 공모

고흥군이 지난 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025 고흥군 지방세외수입 확충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흥군민(출향 향우 및 거주 외국인 포함)과 고흥군에 직장을 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세외수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내용은 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방안, 기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등이다. 응모 방법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제안서 작성 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서는 6월 중 면밀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한 후 시상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